

지역 소식통

완주군, 공동체 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

완주군이 공동체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오는 29일까지 '완주 공동체 리더 및 실무책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등의 가치인식 통일, 사례탐방, 벤치마킹의 공통과정과 그룹별(리더 및 실무책임활동가)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체 리더, 실무책임활동가 각 20명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역선 그룹별로 4~5명이 팀을 구성해 강의-액션러닝-토론-발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실무적인 과정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감 있는 교육 내용으로 운영 계획이다.

신청은 완주군 내 공동체 리더 및 실무책임 활동가이며 지속가능한 완주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지는 완주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clinkcoop@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과정별 교육대상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미니취업 박람회 개최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소연숙)에서 22일 오후 2시부터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희망자 취업 알선을 위한 '2020 김제 미니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재활성화와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는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는 소규모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며 구직등록, 이력서작성 등 다양한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해 참가자들의 원활한 구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식문화 개선 추진

글로벌 표준에 맞는 주민 참여형 식사문화 정착 추진... 앞접시 사용·반찬 덜어먹기 등

완주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음식 덜어먹기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주민 참여형 식사문화 개선방안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은 21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라태일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식사문화 개선 방안과 확산,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태일 부군수는 이날 "찌게나 반찬 덜어먹기 등 식사문화 개선 방안이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식당에서 가급적 앞접시를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부군수는 "사실, 함께 떠먹는 우리의 식사문화는 감염병 예방에 극히 취약할 수 있고 자칫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접시 사용과 반찬 덜어먹기 등 우리 식사문화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새롭게 변화



완주군은 21일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식사문화 개선 방안과 확산,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 부군수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유형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역방역망이 풀리지 않도록 감염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반찬 덜어먹기' 등 주민 참여형 식사문화 개선 방

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외식업체의 생활방역 실천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 논두렁 놀두렁, 김제농촌체험여행' 오세요!

김제시, 농촌관광 홍보·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는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평선 논두렁 놀두렁, 김제농촌체험여행' 사업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홍보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팸투어는 소규모 동호회 및 가족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등 참여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

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운영되고 있다.

또한 김제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중인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단장 최승일)은 지난 8월 파주로1박2일협동조합과의 농촌관광 상호 교류 MOU 체결에 이어, 지난 10월 14일 통영 섬지니 협의회(대표 이동열)와 농촌관광 정보공유 및 상호 교류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

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온라인마케팅, 농촌관광 사업 공유 및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제시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통해 소규모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어촌민박사업자 비대면 교육 재개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한다.

완주군은 2020년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11월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초 완주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법정 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

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교육은 지택의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진행되며, 사전에 문자메시지 및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평자가 많은 농어촌민박의 특성상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화 상담센터와 PC원격지원서비

스센터 운영해 온라인을 활용한 수강생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21 완주방문의 해를 준비하며,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고객 우선의 안전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완주,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광활면은 광활면 자율방범대와 함께 21일 오전 9시 광활초등학교 입구에서 '인구늘리기,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구 늘리고, 저출산 극복하자"

김제시 광활면-광활면 자율방범대, 인구유입·증가 캠페인 추진

김제시 광활면(면장 정우근)은 광활면 자율방범대(대장 양진경)와 함께 21일 오전 9시 광활초등학교 입구에서 '인구늘리기,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내고장 주소찾기', '아이좋아! 셋이 좋아!' 등 어깨띠를 착용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실제 광활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에게 전 입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지원금 지원 등 인구증가 및 전입 시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 직원이 지역사회

와 소통하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캠페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활면은 인구유입 및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관내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우근 광활면장은 "현재 계속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인구증가 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광활면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검산동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김제시 검산동 복지기동대(대장 전용구)는 최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저소득 어르신 5가구를 방문해 안부 확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복지기동대원들과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전준섭) 직원 등 10여명은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낡고 오래된 문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하는 벽면에 안전손잡이 3개를 설치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안전손잡이 설치 외에도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지극정

성 돌보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가스안전타이머를 설치해 드리고, 스토퍼(문고정 장치)가 고장난 독거어르신 댁에는 자동스토퍼로 교체하는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준섭 검산동장은 "직접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해보니 참 보람되고, 앞으로도 민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복지사각지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으로 바쁜데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여한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Earth Day with a polar bear and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